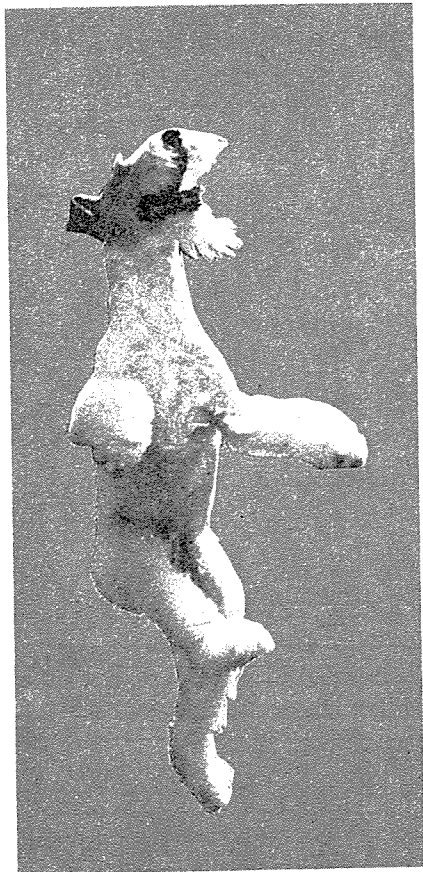


■ 동물 ■ 기생충도 ■ 사람에게 ■ 감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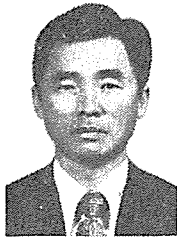
가톨릭의대 기생충학 교실 **최 원 영**

기생충과 숙주의 관계를 보면 숙주가 식물인 경우와 동물인 경우, 그리고 사람인 경우등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동물에 기생하는 기생충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에게 기생하는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도 넓은 의미에서는 동물의 일종이라고 할수 있고 주로 사람에게 기생하는 기생충을 우리들은 인체기생충이라고 부릅니다

만 엄격한 의미에서 사람에게만 기생하는 기생충이란 별로 많다고 볼수 없으며 많은 기생충이 인수공통기생충(人獸共通寄生蟲)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물 기생충과 인체기생충을 엄격하게 나누기란 매우 어려운 과제이고 주(主)된 숙주가 동물이나 사람이나에 의해서 나누는것이 상례입니다.

그런데 기생충 가운데는 숙주 다



〈필자〉

시 말해서 주인을 섬기는데 매우 까다로운 것과 아닌 것이 있어서 숙주가 단 한가지인 경우가 있는 반면에 매우 넓은 종류의 숙주를 주인으로

삼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기생하는 장소도 어떤 특정기관에만 기생하는 경우와 여러기관에 기생하는 경우등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같은 관계는 소위 “슬무유”에 지배되기보다는 단계적인 경우가 더 많은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물기생충이란 주된 숙주가 동물인데 어쩌다 사람에게도 감염하는 기생충이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야 하겠습니까.

요즈음 T·V같은 전자매개체의 발달로 기생충에 관해서도 때로는 매우 소상하게 그리고 매우 계몽적으로 전달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조금 과장되게 또는 오해되기 쉽게 알려지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근래에 와서 공해(公害)가 너무 심하니까 자연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과 동시에 무엇이든지 좋다는 것은 닥치는대로 먹어치우는 마치 공룡(恐龍)을 연상케하는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칫하며는 자연생태계를 위협하는 사례까지 생

길 위험에 이른것 같습니다.

지난번 TV에 의하면 백사(白蛇) 한마리에 1,500 만원을 주고 사먹는 사람이 있다는 보도는 우리같은 서민에게는 감(感)이 안가는 형편이고 또 개구리를 마구 잡아먹어서 이땅에서 개구리가 없어질 지경에 이르렀다는 보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리둥절할 따름입니다.

물론 옛날부터 뱀은 보신탕으로 이용되기는 하였으나 하도 뱀을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요즈음은 귀중한 외화로 엄청난 량의 뱀이 수입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같은 뱀이란 필자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단백질과 조금 다른 단백질 성분을 섭취한다는데 의미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이상의 무엇인가를 기대하는것은 좀 지나친것 같습니다.

그런데 뱀탕을 먹는것으로 만족하지를 않고 뱀의 생피나 생간을 먹고 또 살을 날로 먹는것이 더 효과가 좋다고 해서 마구 먹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들 뱀에 들어있던 기생충이 우리몸에 들어와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까요?

필자는 10여년전에 모회사의 사장이 뱀을 10여마리 날로 먹은후 작은 촌충이 생겨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이고 전세계적으로 아홉번째의 인체 기생충으로서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경우는 뱀에 있던 유충이 사람체내에서 성충으로 자란예이나 대부분의 경우는 뱀이나 개구리에 있는 촌충의 유충이 우리몸에서 성충으로 되지 못한채 유충상태로 여기저기를 여행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뇌조직이나 척추에 기생해서 어떻게 할수없는 중독한 증상을 일으키기도 하기때문에 그같은 위험 부담을 안고까지 먹을만한 가치가 있는것인지? 의심이 갑니다. 또한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먹었을 경우에 민촌충이나 갈고리촌충이 인체에 기생하는 것은 동물기생충이 아니라 인체기생충 중에서 그냥 넘어갈수 없는 중요한 감염원이고 또 소의 생간(生肝)을 보며는 납작한 간질(肝蛭)이라는 흡충이 있는데 이것도 때로는 사람에게 기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우리나라민은 많은 기생충을 몸에 지니고 왔었기때문인지는 몰라도 기생충을 별로 무섭게 생각하지 않는 버릇이 생긴것 같습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기생충이란 적어도 문화인을 자처한다면 몸에 지녀서는 안될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근래에 식생활이 다양해지면서 과거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여러가지 음식을 즐겨먹게 되었고 또 자기 몸을 사랑하는 나머지몸에 좋다는것을 가리지 않고 먹게 되므로서 사람

에게 기생하는 기생충도 다양해진느낌입니다.

또한가지 주의할것은 원래 기생충이란 생식을 통해서 우리몸에 들어오는데 본인은 익혀먹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실제로는 덜익은 쇠고기, 돼지고기에서 기생충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요즈음 즉석불고기집에 가며는 소위 1인분이라는것이 어찌나 분량이 적은지 몇점 집으며는 없어지니까 체면을 차린다던가 혹은 잘 익은후에 먹으려며는 차례가 오지 않아서 그저 불에 올려놓기가 바쁘게 입으로 가지고 가기때문에 실제로는 불고기를 먹기보다는 날고기를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을것 같습니다.

또한 돼지고기의 경우도 오래동안 삶으며는 자꾸만 크기가 작아지고 시간도 모자라고 해서 적당히 익은후에 상에 올라가게 되어서 살아있는 기생충이 그대로 우리몸에 들어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같은 기생충들은 엄격하게는 인체기생충인 동시에 동물기생충이기도 한것들입니다.

이런것들 가운데 고래에 기생하는 회충의 유충이 사람에게 감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위 "아니사키스" 유충으로 불리우는데 바다생선 이나 낙지 오징어같은 두족류에 기생하고 있다가 이들이 사람에게 먹히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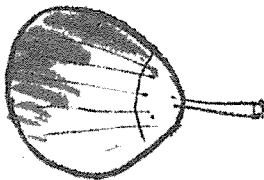
사람에 이유충이 기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것은 바다생선회를 먹는 사람가운데서 매우 적은예에서만 기생한다는 사실때문에 과거에는 전연 몰랐다가 약 20여년전부터 알려졌습니다.

이 “아니사키스”유충은 사람에선 성충이 못되고 유충상태로 위나 장에 작은 혹을 만드는데 그자체는 양성기때문에 생명을 위협하지는 않으나 이질환이 다른 위폐양이나 심지어 위암등으로 오인되어서 위나 장의 절제수술을 하게 되는등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므로 주의해서 진단해야만 합니다.

근래에 동물기생충이 인체 기생하는 예가 증가하는 추세는 우리들의 생활향상과 더불어 영양식이나 미식가들이 늘어가고 있고 또한 식생활의 다양화때문에 여러가지 기생충들이 체내에 들어갈 기회가 증가하고 있기때문에 동물기생충의 인체기생충화가 많아지는것 같습니다.

(필자=가톨릭의대 기생충학교수·의박)



〈53P에서 계속〉

3) 감기는 소비성이 큰 병이다.

(답: 그렇다. 우리나라 인구를 4천만으로 치고 대략 계산해보면 1년동안에 감기때문에 일의 능율이 저하되는 날이 도합 약 6천만일, 또 학교 결석날자 루게는 약 1천만일, 그리고 직장결근은 외국에 비하여 훨씬적어 약 6백일이 될것이다. 또 감기약, 기침약, 병원비, 크리벡스값 등 총합계는 1년에 약 5천~6천 억원에 달하는 계산이된다.

—우리는 지금 「암」을 정복하려고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감기」를 정복하는 일은 암을 정복하는일보다 더 힘들것 같다.

너도 나도

검사받아

숨은 질병

찾아내자

■ 한국기생충박멸협회

■ 한국건강관리협회